산업통상자원부 「제조업」르네상스	보도참고자료	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
2019년 11월 24일(일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1. 24(일)	담당부서	신남방통상과
담당과장	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	담 당 자	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11)

통상교섭본부장,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 격려

- 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계기 개최한 아세안 사무총장-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 -

□ 유명희 **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**은 11.24일(일)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계기 아세안사무총장과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 간 간담회*에 참석하여, **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을 격려**하는 기회를 가졌다.

* The Dialogue between ASEAN Secretary General and Association of ASEAN Korean Chambers(AAKC

○ 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출범한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와 아세안사무국과의 교류채널을 마련하기 위하여 11.25-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「한-아세안 특별 정상회의」계기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.

<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11.24(일) 15:00~15:50 /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
- 참석 : 통상교섭본부장, 아세안사무총장, 아세안사무국, 아세안 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단, 대한상의, 코트라 등
- 주요내용 :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한인상공인 건의사항 전달 및 한-아세안 경제협력방향 논의

□ 금년 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는 **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며,** 2009년(제주)과 2014년(부산)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, 이는 아세안 **대화상대국 10개국*** 중 최초이다.

*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미국, 러시아, 캐나다, EU

○ 또한, 메콩국가*와도 첫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, 금번 회의를 통해 한-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태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

□ 유명희 본부장은 간담회를 통해 아세안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한-아세안 경제협력의 주역들임을 강조하며,

○ 이번 간담회가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대표로서 아세안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고, 한-아세안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FTA 네트워크 확대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기술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.

□ 유 본부장은 **한국과 아세안은 30년 지기 친구**로 **아세안의 성장잠재력*** 감안시 앞으로도 **함께 발전해 나갈 여지**가 크다고 강조하고,

* 인구 6억5천만명(세계 3위), GDP 2조9천억달러(세계 5위), 경제성장률 5%대

○ 금년 「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」가 **성공적으로 개최되어, 한국과 아세안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는 전환점**이 될 수 있도록 아세안사무총장과 아세안한인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박수정 사무관 (☎044-203-57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